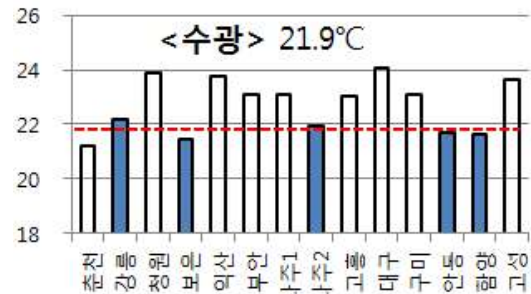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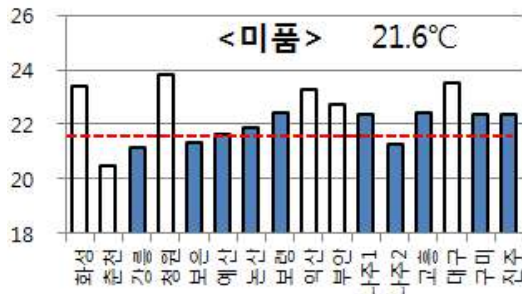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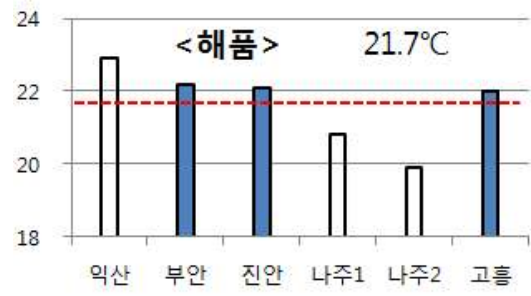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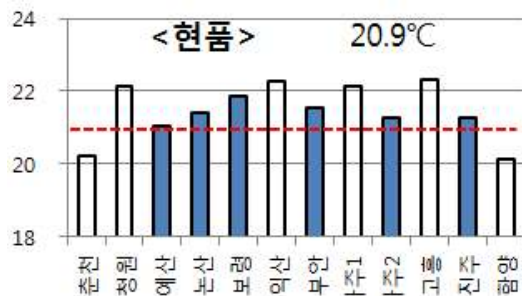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
(°C)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
(°C)



<그림 1-5> 최고품질벼 품종들에 적합한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 및 지역별 재배적합도 검정

3. 최고품질벼 품종별 최적출수기 자료를 이용한 품종 및 지역별 이앙시기 산정

가. 이앙시기별 출수기 변동 검정

벼의 출수기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출수도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늦어지는 정도는 이앙시기와 품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출수기를 기준으로 이앙시기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과제에서 최고품질벼를 이용하여 이앙시기별 출수기 변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는 없지만, 별도의 시험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수행된 최근 육성 신품종들에 대해 이앙시기별 출수기 변동자료를 인용한 결과는 표 1-6에서 보는바와 같고, 이앙시기별 출수기까지 소요된 기간(출수일수)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생종의 경우 6월 20일까지 이앙기가 늦어질수록 출수일수는 감소하였으나 6월 20일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고, 중생종과 중만생종의 경우는 이앙기가 늦어질수록 출수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6월 20일이 경과하면서부터 감소정도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앙시기별 출수일수는 생태형과 품종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였다.

벼는 기본영양생장성을 마치고 난 후 출수에 관여하는 요인이 온도(감온성)와 짧아지는 일장(감광성)이다. 우리나라는 하지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약 14.7시간) 단일성 작물에 속하는 벼는 하지 전까지는 일장에 감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앙시기에 따른 출수기의 변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도록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지’라는 요인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최근 육성 신품종들의 이앙시기별 출수기 변이(‘15~’16, 식량원)